제11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돌입

의장에 박병술 의원 · 부의장에 강동화 의원 선출… 오늘 상임위 선임

제11대 전주시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전주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법령준수 및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제351회 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박병술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동료의원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66만 전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소홀함 없이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의를 수렴, 진심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혼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술 의장

강동화 부의장

강동화 신임 부의장은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가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부모교육특강' 성료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지난 7일 '영어 그림책의 기적' 저자인 전은주 강사를 초청, '웰컴 투 그림책 육아'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시립 완산도서관은, 이번 특강을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독서진흥 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생애 첫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9일 전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알파벳을 어려워 하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게 된 영어 그림책 육아방법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수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8월 31일, 효자도서관 강당에서 '우리가 바라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심리육아'를 주제로 김학철 강사의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아름답게 만개한 덕진공원 연꽃

최근 전주시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을 구경하며 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젊음의 비상을 담은 연극축제'

전국청소년연극제 집행위원회 · 왕오빠와 아이들 업무제휴 진행 · 홍보 등 효율적 협조체계 구축 · 문화 발전 공동 기여

전국청소년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왕오빠와 아이들(이벤트기획),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를 추진함에 있어 진행과 홍보 등에 효율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지역문화예술사회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난 6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서 열린 상호업무제휴협약식에서 양 단체는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왕오빠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대행사(꿈을 꾸는 우리! 비상(飛上)! 청소년 버스킹)와 기타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왕오빠와 아이들 관계자 측에 편의와 일부 부대행사 할인을 제공한다.

올해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스물두 돌을 맞아 '문화특별도시, 전주'에서 개최된다. '젊음의 비상을 담은 연극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18개 팀을 불러 모은다. 본 경연은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 명인홀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며, 7월 12일을 시작으로 알찬 부대행사 역시 준비되어 있다.

/송효철 기자

군산 어청도 어선 전복 원인… '예인줄 걸림' 추정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구조된 군산 어청도 어선 전복 사고는 예인줄 걸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7시13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12㎞ 해상에서 7.93t급 새우잡이 배가 전복돼 선장 권모(56)씨가 실종되고, 선원 4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이 118t급 예인선의 줄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예인선은 3354t급 바지선을 끌고 사고 해역을 지나던 중이었다.

예인줄의 길이는 200m가량이었다. 예인줄은 상황에 따라 수면 위에 뜰 수 있고, 수면 1m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어선은 7t이 넘기 때문에 통산 10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다.

해경은 사고 지점 반경 24㎞를 수색 범위로 설정하고 실종된 권씨를 수색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킥복싱 배우며 학교밖청소년 자신감 'UP'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킥복싱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5일, '킥복싱-펀치펀치'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JBJ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스파링 대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킥복싱-펀치펀치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10명이 참가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시간씩 2개월간 총 30시간 진행됐다.

킥복싱을 지도한 손구봉 사범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남자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여자청소년들도 힘든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주 2일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운동에 흥미가 생겼다"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운동을 하고 부터는 좀 더 활동적이 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고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꿈드림' 사업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사회진입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학력취득,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돌봄 '앞장'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완산소방서와 업무 협약 체결

전주시가 일반인과 비교 외상 후 스트레스(이하 PTSD) 발병률이 10배 높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완산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PTSD MP3)'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PTSD는 정신적 문제뿐 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근과 이직, 알코올과 약물 남용, 가족갈등 등의 결과까지 초래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PTSD를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전체의 6%로 일반인의 10배에 달한다. 또, 우울증은 5%로 일반인의 6배, 음주관련 정신장애는 27%로 5.5배, 자살한 소방관은 12명으로 일반공무원 순직자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사고현장에서 경험하는 부상, 생명의 위협, 재난 등으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관을 조기 발견하여 PTSD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설문조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순회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